

2024년
고2
3월 학평

2024년 시행 고2 3월 학평 국어 문학 | 옥란전 분석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지문 분석

[앞부분의 줄거리] 당나라 때 한림학사가 된 장사운은 옥란과 옥계라는 두 딸이 있었는데, 이 중 옥란을 송 시랑의 아들과 정혼시킨다. **권세를 잡고 있던 환관 강환은 이를 알고도 자신의 아들과 옥란을 강제로 혼인시키려 한다**(옥란이 처한 위기).

장 학사가 강환이 권신이라 독한 마음을 먹을 것을 염려하여 외면으로 말하기를,
“**하방 천한 출생에게 대항문족이 구혼하니 감히 감당하지 못하여 허락지 못하오며**(장 학사가 강환의 혼인 요청을 거절한 이유 ①), 또 **이전에 송 시랑과 선약하였으니**(장 학사가 강환의 혼인 요청을 거절한 이유 ②) 이 역시 못할 일이옵니다.”

강환이 그 말을 듣고 크게 노하여,

“저는 **서촉의 천한 출생**(강환 가문보다 권력상 약한 위치에 있는 장 학사 가문의 취약성이 드러남.)이면서 천행으로 등과하였으면서 남을 환관이라고 업신여기는데도다. 저의 생사 내게 맡겼거든 내 말을 어찌 멀리하리오. **소위 송 시랑을 먼저 처치하리라**(자신의 아들과 옥란을 혼인시키기 위해 송 시랑을 처치하고자 하는 강환).”

하고 즉시 탑전에 들어가 천자에게 참소하여 송 시랑을 의금부의 신문에 부치니, 송 시랑이 너무 당황하여 어찌할 줄을 모르고 옥중에 내려가 장 학사에게 기별하니, 학사가 바빠 나와 손을 잡고 시랑에게 일러 말하기를,

“시랑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강환이 제시한 혼인 요청을 거절한 죄)로 그러하노라.”

하고 전후 사정을 말하니, 시랑이 말하기를,

“학사 요량대로 하려니와 **나는 죽어도 약속을 변경할 뜻은 없다**(송 시랑은 자신이 죽어도 자식들의 혼인을 유지시키고자 함).”

하고 옥으로 내려가니, 학사 시랑을 위로하며 명백한 상소를 지어 궐문에 들어갔다. 강환이 그 사연을 알고 자 하여 금오랑을 분부하여 북지옥에 가두니 **학사 원망스러워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말하기를(해당 상황에서 학사가 부를 만한 시조로 적절한 것을 찾으라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나의 죄는 과거가 원수로다. 타향 일이 이렇게 되니 가련하다. 소인에게 잡힌 바 되어 진실을 밝힐 길 전혀 없으니 객지의 귀신이 된단 말인가? 가련하다! 옥란 형제를 세상에 없는 기이한 보물같이 길러 내어 명문거족에 구혼하려다가 천행으로 하남 땅 송 시랑과 혼인을 약속하였더니, **원수 놈 강환이 나를 깔보고 천한 출생이라 여겨 구혼하여**(장 학사가 겪게 된 위기) 이 지경이 되니 **내 앞으로 옥귀신이 될지언정 옥같은 옥란을 환관놈에게 보내리오**(‘환관놈’인 강환의 명망을 낮게 평가하여 강환 가문과의 혼사를 거부하는 장 학사의 인식이 드러남.). **저 애들에게도 편지도 통할 수 없으니 갈 수 없는 기이한 변란을 어떻게 전하겠는가**(옥에 갇혔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을 옥란과 옥계에게 전할 수 없음.).”

하고, 나중에도 추가로 변론할 길이 없더라. 이때에 강환이 학사의 뜻이 변치 아니할 줄 알고,

“**흉계를 내어 장사운의 가짜 편지를 만들어**(강환이 생각한 계교) **옥란을 데려다가 늑혼* 하리라(늑혼 모티프가 드러난다는 점에서 「옥린몽」과 연계될 수 있습니다.)**”

하고 사관이 나가 사운의 행장을 열어 보니 하나의 필갑과 수지가 있어 자세히 보니 그 딸 이름이라. 이별시에 한 말과 지은 글귀가 다수 있는지라. 가지고 돌아와 그 연유를 엮어 편지하되, **슬프다! 귀옥에 갇힌 장 학사가 어찌 알리오**(서술자 개입, 편집자적 논평).

강환이 사운의 편지를 만들어 황문 위졸 수십을 명하여 옥교자를 가지고 장사운 집으로 보내고자 하는 이

때, 옥란 형제는 부친을 먼 황성에 보내고 주야로 소식을 기다리더라. 이때 황성에서 오는 하인 수십 명이 집으로 돌아와 편지를 전하거늘, 옥란 형제 급히 받아 뜯어보니, **편지(강환이 쓴 가짜 편지)**에 이르기를,

‘옥란아, 옥계가야, 너희 형제 잘 있느냐? 너희 본 지 일년이 넘어가니 침석 간이라도 잊은 적이 없다. 아버지는 천행으로 이름을 금방에 참여하여 한림학사로 출석하니, 천은이 망극하다. 너의 현숙함이 경성에 자자하여 명문거족들이 구혼하는 자가 무수한데 **그중 높은 가세와 출중한 사람을 구하여 정혼하였으니(강환의 아들과 정혼하였다는 거짓말을 함.)** 너희 사촌 영진과 함께 올라오라. 나는 자리를 비우지 못하여 못 내려가니, 부디 빨리 와서 아버지를 오래 기다리게 하지 마라.’

하였더라.

옥란 형제가 편지를 본 후에 영진을 불러 길을 차려 떠나는데, 사오 일만에 하간부에 들어 어떤 곳을 정한 후에 잠을 이루었는데, **비몽사몽간에 학사가 목에 칼을 쓰고 들어오며 옥란의 손을 잡고 통곡하며(꿈에서 옥에 갇힌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됨.),**

“이 일을 어찌 알고 왔느냐? 나는 이리하여 지금 북지옥에 갇혀 죽을 날이 멀지 아니하니, 가련하다! 너희 형제를 언제 다시 볼까! **소인의 흥계(강환의 흥계)**로 너를 데려오니, 만일 올라오면 헤아릴 수 없는 옥을 볼 것이니 어떻게 하더라도 도피하여 강포지옥을 면하라. **와도 나를 볼 길이 없을 것이니 하남 땅 송 시랑의 집에 가서 의탁하라. 나와 매우 친한 친구의 집이라(경성으로 오지 말고 송 시랑의 집으로 갈 것을 꿈에서 말할. ‘꿈’이 하는 역할을 묻는 문제 및 「심청가」에 드러나는 ‘꿈’과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갈 곳이 없으니 부디 찾아가라.”

하거늘, 옥란이 놀라서 잠을 깨니 심신이 혼란하여 옥계와 영진을 깨워 이르되,
“괴상하도다.”

[“어이할까? **세 명이 도모하여 올라가 상황이나 알고, 만일 대인이 체수* 중에 계시거든 옛날 한나라 재영*의 뜻을 받아 구하여야 하되(장 학사가 정말 죽을 위기에 처했다면, 구해주러 가야 함.)**, 여기서 경성이 수천 리요. 남자 옷이 없으니 여자 옷으로 어떻게 수천 리를 가리요.”

옥계가 이윽고 듣고 말하기를,

“형아, 꿈속 일이라 믿지 못하겠지만, 범상한 일이 아니라. 형아 말이 옳으니, **오라비와 옷을 바꾸어 입고(남자의 옷을 입고 도망치게 되는 옥란)** 나는 연약하니, 이대로 문밖에 나가서는 각각 헤어져 가다가 경성 가서 서로 만나면, 우리 대인의 신원을 알 것이고, **만일 함께 도주하다가 하인에게 잡히면 다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따로 헤어져서 경성으로 가는 이유.)**”

옥란이 말하기를,

“너의 말이 옳다.”

하고, 종남매가 옷을 바꾸어 입고 하인이 잠들 때를 엿보아 문을 가만히 열고 나갔는데, 아직 밤중이라. 성문이 닫혀 갈 길이 없었다. 이에 성의 담을 찾아 넘을 때 옥란이 먼저 넘고 옥계가 다음으로 넘고 **영진이 나중**에 넘으려 하다가 **수문줄이 알고 붙들거늘(일행 중 한 명인 영진이 붙잡히게 됨.)**, 영진이 옥란 형제가 탄로 날까 염려하여 남자라 밝히지 아니하고 잡히어 앉으니, 시간이 지나 황문 위줄이 알고 성문에 바빠 와 보니, 옥란이 혼자 있는지라. 위줄이 크게 놀라 말하기를, **[([] : 위기의 상황 속 남자의 옷을 입고 길을 나서게 되는 옥란, 「이대봉전」과의 비교를 묻는 문제에 윗글의 ‘옥란’과 <보기>의 ‘애황’은 남장을 하고 난 후, 영웅적 능력을 얻게 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와 같은 틀린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낭자, 어찌 이러는가? 우리가 장 학사의 명을 받아 왔는데 이렇게 가면 소인들은 죽을 것이다. 배웅 오실 것인데, 옥계 낭자는 어디 숨어 있는가?”

영진이 생각하니, 옥란의 종적이 탄로 날까 하여 옥란인 척하며, 말소리를 유순하게 하여 말하기를,

“밤에 어떠한 신인이 와서 일행을 잡아가지에 붙잡으려 하고 나오니 간 데 없음에 방황하던 차에 수문줄에게 잡히어 이곳에 있노라.”

하니, **영진의 모양이 옥란과 똑같은지라(옥란과 옥계가 도망갈 수 있게끔 거짓을 말하는 영진).**

- 작자 미상, 「옥란전」